1952년 자유프랑스

국가 원수 : Charles De Gaulle

1944년, 서부전선 개막후 이뤄진 파리 해방 당시, 샤를 드 골은 파리를 행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구국의 영웅으로 확실히 남겼습니다. 그러나 1945년, 샤를 드골은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됩니다. 프랑스 정부가 반동 왕정주의자들과 사실상 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. 샤를 드 골은 파리의 젊은 대학생들과 노동운동가들을 중심으로 "구국의 결단"을 시도했으나 3일만에 진압당했고 공항을 통해 아프리카로 도주해 프랑스 제 4 공화국 정부를 창설하였습니다.

"오스왈드 모즐리와 엘리자베스를 단두대로!"

수도 : 아비장 (영토는 코트디부아르 해안)

국민정신 :

1. 존재하지 않는 산업 ( 생산 -50%)

2. 개같은 날씨 (조직력 -30%)

3. 라이베리아 일루미나티의 위협 (안정도 -30%, 정치력획득 -0.5)

정치

신공화국동맹 (권위민주주의) 64

프랑스공산당 (공산주의) 22

급진당 (자유민주주의) 14